

An innovative France in South Korea

한국에서 찾아보는 혁신적인 프랑스

3D Sound in cars by Arkamys

아카미스의 3D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 출시

In the second half of 2009 Renault Samsung Motors launches its new model New SM3 equipped with the audio system "3D Sound by Arkamys". Developed by digital processing expert Arkamys, this audio enhancement software provides driver and passengers with a higher listening comfort thanks to the creation of a true sound stage.

The process which is based on digital signal processing does not require modifying the speaker configuration since it works at the sound source, i.e. the car radio.

The sound spatialisation process adds extra volume to the sound giving the listeners the impression of perceiving several sound sources. But unlike 5.1 audio systems, Arkamys' solution does not necessitate increasing the number of speakers in order to create this spatialisation effect, stereo speakers do suffice.

The success of the project is based on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teams of Renault Samsung Motors and Arkamys to adapt Arkamys' spatialisation technology to RSM vehicles. The label "3D Sound by Arkamys", visible on the car radios' display, shows how much importance the car manufacturer attaches to the quality of the listening experience in its cars.



르노삼성자동차는 2009년 하반기에 신형모델 SM3를 출시했다. 이번 신형 SM3에는 오디오 시스템 "아카미스 사의 3D 사운드"가 장착되어 있다. 디지털 오디오 전문 아카미스 사가 개발한 오디오 시스템은 최적의 상태로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해 주는 소프트웨어로 운전자와 승객들은 생생한 사운드 덕에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그널을 처리하는 방식이라 자동차 라디오 음원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스피커 시스템의 배치를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

또한 사운드가 공간에 고루 퍼지기 때문에 사용자는 여러 사운드를 시원하게 들을 수 있다. 5.1 시스템과는 달리 아카미스의 시스템은 사운드를 더욱 웅장하게 들으려고 스피커 시스템을 여러 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미 스피커 시스템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르노삼성자동차 팀과 아카미스 팀이 협력하여 아카미스의 사운드 공간화 기술이 르노삼성자동차의 차량에서 잘 작동할 수 있게 했고, 그 덕에 이번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을 이루었다. 자동차 라디오의 모니터에 있는 "3D Sound by Arkamys" 라벨은 르노삼성자동차가 차량 사운드의 품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준다.